

제공일자	2013. 6. 4(화)	담당자	김혜식 연구위원(금융전략실)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41 010-7404-5057
			총3매

제목 :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실질적 연구에 집중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은 보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·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**Opinion Leader**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할 예정
- 최근 저금리,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이슈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채택이 가능한 연구결과물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신임 강호 원장은 6월 4일(화)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연구원을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·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에 기여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취임 1년차의 포부를 밝혔음.

- 보험산업은 자산 700조의 금융업으로 성장한 만큼, 다른 금융업과의 종합적인 상호연관성에 기초하여 보험산업을 외부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폭넓게 성찰 하고자 함.
- 아울러 보험산업 내부적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감독제도 강화 등 현안이슈에 대해 보험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대안 제시를 보다 시급하게 수행할 계획임.

□ 이런 관점에서 강호 원장은 이미 확정된 연구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저금리와 감독제도 변화 등 현안이슈와 관련된 다음의 『4대 주요 연구사업』을 추가로 연구할 것임을 밝힘. 이를 위해 연구원의 핵심역량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추진(<별첨 1> 참조).

- ①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수립 지원
- ②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방안 제시
- ③ 보험유통채널 구조에 관한 연구
- ④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

- 강호 원장은 『4대 주요 연구사업』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인 **재무건전성 규제 강화**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수립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.
-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국제적 규제 강화 추세와 저금리에 대응하여 **재무건전성 강화계획**을 추진 중이나, 국제적 규제의 미래 모습과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.
 - 감독당국은 **2014년까지 위험기준자본금(RBC) 산출계수의 신뢰수준을 높여 자본을 대폭 확충**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음[별첨 2, 3].
 - 그러나 **EU Solvency 2와 미국 RBC의 접근방식 차이**,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변화, 국내 저금리 영향이 재무건전성 강화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면 정책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봄.
- 국제기준에 있어서 **보험회계는 2단계 기준이 추진 중**이고, 건전성 규제는 아직 국제기준이 없으나 **EU와 미국의 보험회사 건전성규제 개혁** 작업의 내용과 두 체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
 - **보험회계(IFRS4) 2단계 기준**은 올해 하반기에 2차 초안이 공개되고 내년엔 최종안이 채택되면 **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**
 - EU는 미국 RBC에 해당하는 정량평가(pillar 1)와 상시모니터링에 의한 정성평가(pillar 2, 3)로 구성된 Solvency 2를 이르면 **2015년부터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할 예정**
 - 미국 역시 Solvency 2를 벤치마킹한 정성평가체계를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나, 정량평가(RBC)는 **EU Solvency 2와 뚜렷한 차이**를 보임.
 - 국내 보험회사 정량평가는 미국 RBC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EU Solvency 2와 미국 RBC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여 **미래 감독방향이 담긴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.**

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건전성 강화 로드맵

- 보험회사 RBC 및 부채적정성평가의 강화와 보험료 조정이 하나의 틀 안에서 조명되어야 정책 효율성과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임.
- 자본, 준비금, 보험료에 대한 규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보험회사가 스스로 재무건전성 강화플랜을 수립·실행할 수 있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.
- 따라서 장래 저금리 환경에서 자본, 준비금, 보험료에 대한 통합 규제 로드맵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.

- ※ 별첨 : 1. 2013년 보험연구원 연구사업계획
2.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강화계획
3.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 : 부채적정성 평가

2013년 보험연구원 연구사업계획

I. 4대 주요 연구사업 : 추가 과제

- ☐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와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4대 핵심연구분야를 선정하고, 연구결과의 정책/경영전략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미나·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 및 공유

1.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수립 지원

- ☐ 감독당국은 국제적인 규제 추세와 저금리에 대응하여 충분한 준비금 적립과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**건전성장화계획**을 추진할 예정
 - 저금리 환경에서 여러 규제의 동시 진행으로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가용자본 확충을 위한 이익창출이 어려운 상황
- ☐ 자본, 준비금, 보험료 등 다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을 전산업적 관점에서 검토

2.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방안 제시

- ☐ 재원조달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공적안전망 위주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**맞춤형 복지**, **자립을 지원하는 복지**를 구현하기 어려움.
 - 사회보험의 장점인 **공공성**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**효율성**을 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형태의 **맞춤형 복지체계**의 구축을 모색
- ☐ 저성장·저금리로 성장이 정체된 보험산업에 이를 통해 **새로운 성장의 기회**를 제공

3. 보험유통채널 구조에 관한 연구

- 채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충분한 해외사례 고찰과 합리적 논리 개발 및 이해관계 조정으로 정책 및 전략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
- 판매채널별 경쟁력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보험유통구조에 대한 당국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

4.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

-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적 경쟁규제와 보험업법 상의 전문적 보험규제를 함께 받고 있는 보험산업의 공정거래 규제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보험회사의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(legal risk 축소)

II. 주요 연구사업 : 기 수립 연구과제

1. 경영 효율화

- 금융산업의 장기비전 및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목표로 종합금융화, 경영혁신 모델 등 관행개선 및 경영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
- 보험사가 당면한 현안 중심으로 4개 연구사업계획을 추진
 - ①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거시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
 - ②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수수료 체계 연구
 - ③ 저성장-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대응전략
 - ④ 보험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

- 또한 **국제보험금융센터(신설)**를 통해 글로벌 사례 및 동향에 대한 체계적 조사·연구를 수행

2. 리스크 관리 선진화

- 보험 및 금융산업의 **리스크를 효과적으로** 대처하기 위해 **선진 기법 및 제도 도입**을 목표로 함.
 - 보험산업의 리스크 관리는 자산 및 부채관련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용리스크 등 범위를 확장하여 **전방위적 리스크관리**가 가능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
- 저성장·저금리 환경에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2개 연구사업계획을 추진
 - ① 경영정보의 생산 및 공시 체계 개선방안
 - ② RBC 보험리스크 산출방법 적정성 연구

3. 고령화와 신성장 대응

- 국가적 복지 이슈인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고, **보험산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 강화**를 목표로 함.
 - 노후소득 보장 및 건강복지체계에 관한 **거시적 연구**를 통해 **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** 및 **복지정책에 기여**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
- **보험산업의 신뢰러다임** 모색을 위해 4개 연구사업계획을 마련
 - ①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**금융산업의 역할제고** 방안
 - ② 소득계층별 **개인연금세제** 효율화방안
 - ③ **효율적 의료비 지출**을 위한 **의료보장체계** 연구
 - ④ **건강관리서비스 사업모형** 연구

4. 금융·보험 법제 개선

- 금융법제의 글로벌 트렌드,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한 **보험법제의 선진화**를 목표로 함.
 - 보험·금융 관련 법제, 금융상품 수수료, 자동차보험 요율체제 등 제도개선 관련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
- 근본적 체제 개편 없이 보완만 지속된 보험법제 개편방안을 연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**보험생태계의 틀**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3개 연구사업계획을 추진
 - ① **보험법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** (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공동연구)
 - ② **보험고객정보 처리 범위와 절차 연구**
 - ③ **금융산업 지급결제제도 평가와 개선방안**

<별첨 2>

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강화계획

- 감독당국은 저금리 대응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(Risk-based Capital)를 2014년까지 단계적 강화방안 제시
- 감독당국은 향후 1년 이내 늘어날 추가 요구자본(지급여력기준액)에 대응하여 RBC비율을 현행 권고수준(150%)보다 50%p 높은 200% 수준 유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.
- 이는 RBC비율 200%를 유지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신뢰수준 상향 시 요구자본(지급여력기준액)이 지금보다 33% 증가하여 RBC 비율이 150%로 하락한다는 의미임.

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개선 일정

구분		추진시기
자기자본 (지급여력)	① 자본계층화	'12년9월 (既시행)
요구 자본 (지급여력 기준액)	② 금리역마진위험액 반영	'13년 1분기
	③ 변액 보증위험액산출방식 개선	'13년 1분기
	④ 신뢰수준 상향(95%→99%)	
	· 보험위험액(생보·장기)	'12년9월 (既시행)
	· 보험위험액(일반·자동차)	'13년 3분기
	· 금리위험액	'13년 3분기
	· 신용위험액	'14년 1분기
	⑤ 위험상관계수 반영	'13년 3분기

- 국내 재무건전성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은 요구자본 산출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유럽 Solvency II와 미국 SMI(RBC포함)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(정책세미나 예정).

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 : 부채적정성 평가

- 부채적정성평가는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한 준비금(부채)이 미래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임(IFRS Phase I 도입으로 2011년 시행).
 - 준비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계약체결시점의 가정을 통해 계산되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준비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.
 - 이에 따라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경우(즉, 부채의 증가) 가용자본의 감소로 이어짐.
 - 특히, 저금리가 예상되는 경우 향후 기대되는 투자수익률이 보험료 계산시점에서 예상한 투자수익률보다 낮아 준비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.
- 2018년 준비금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의 시행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은 부채적정성평가의 정교화를 추진 중
 - 2011년 IFRS의 시행으로 보험회사는 매기마다 부채적정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함.
 - 향후 시가평가와 유사하게 부채적정성평가의 정교화가 진행될 경우 가용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
 -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는 기존의 준비금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자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음.